



## 發明운동가 외길人生

새 생각회 姜 信 默 회장



〈姜 信 默 회장〉

『사람은 누구나 發明人이 될 수 있습니다.』

전국민의 發明人化를 위해 직장(교사)까지 그만두고 10년 동안이나 전국의 학교·직장·단체를 찾아 發明의 重要性과 技法을 講義해온 새 생각회 姜 信 默 회장의 첫 마디.

우리나라 유일의 「아이디어」의 著者이기도 한 그도 한때는 發明人으로 5件的 特許權을 획득한 바 있다.

姜회장이 지난 10年 동안 講義를 해온 곳은 本會를 비롯하여 국립과학관·수출산업공단 복지관·자양새마을유아원·수원공전·대우국교·성남제일국교 등 수없이 많다.

講義內容은 주로 나도 發明할 수 있다·生活의 科學化·아이디어技法등 發明人이 되는 길을 案内해 주는 것이었다.

그는 發明人이 되려면 우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뚜렷한 문제발견과 간단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힘(지혜)를 길러야 한다고 強調했다.

또 發明人은 發明에만 몰두하라고 당부하며, 완성된 發明은 企業人으로 하여금 企業化하도록 하는 것이 發明人과 企業人이 동시에 保護받는 길이라고 말했다.

姜회장은 또 앞으로의 發明은 個人보다는 여러 사람이 합

동으로 하는 共同發明이 바람직하다며, 個人發明人의 경우 發明은 本業도 副業도 아닌 취미로 하라고 힘주어 말했다.

또 發明은 우리 日常生活 주변의 가깝고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,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한가지에 몰두해야 成功할 수 있다고 強調했다.

姜회장은 또 企業의 경우는 全社員이 研究員(發明人)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, 이때 會社側은 新製品·新技術開發을 위해 提案制度를 最大限 活用해야 한다고 말했다.

姜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아직도 發明人 保護對策이 미흡하다며 當局은 發明人의 社會的 지위향상 등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 연락처 전화 서울 732-2900 <※>